

정책 동향

에너지 원자재 수입 증가

산업자원부는 최근 발표한 '2002년 10월 수출입 실적 (잠정) 평가' 에서 10월 들어 LNG 원유 등 에너지 품목과 철강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정도 전체 수입규모가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에너지 품목의 수입증가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겨울철 난방에 대비한 재고물량을 비축하기 위해 관련 수요를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27.56 달러를 기록, 작년 10월의 24.86 달러에 비해 배럴당 2.70 달러 올랐다고 지적했다.

원유 도입물량도 6256만배럴에 달해 지난해 같은 달 6227만배럴에 비해 29만배럴 증가했다.

LNG 수입도 발전용 수요 증가로 급증했다. 작년 10월 137만7000톤을 기록했던 LNG 도입물량이 올해에는 36만2000톤 늘어난 173만9000톤을 나타냈다.

이로써 10월달 LNG 수입액은 3억6000만 달러로 추정됐다. 한편 자본재도 전기·전자제품과 기계류의 수입이 꾸준히 늘어 작년 동기대비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기·전자제품 가운데 조명기기와 중전기기의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6%, 5.8% 증가한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기계류는 설비투자자의 호조로 반도체 제조장비 등 정밀기계와 수송기계의 수입이 증가해 작년 동기대비 29.8%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에 FTA 제의

정부는 14일 한-싱가포르간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싱가포르측에 공식 제의했다.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 15일 양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25개 주요국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조지 여 싱가포르 통상장관을 만나 한-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제의

한다고 외교부가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칠레간 FTA 체결에 이어 향후 우리나라의 FTA 협정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황 본부장은 조지 여 장관에게 양국간 FTA 추진을 공식 제의할 예정이며 구체적 추진방안은 실무진 협상에서 논의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책동향

싱가포르도 한국과의 FTA 체결을 여러 번 제의해 온 것으로 알려져 한-싱가포르간 FTA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번 WTO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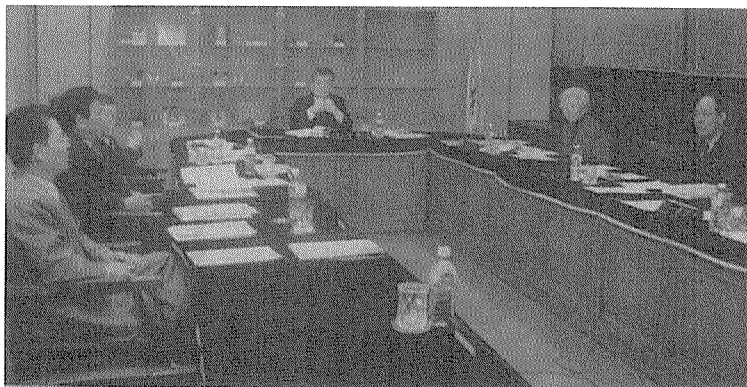
직접구매제 내년 1월부터 실시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을 개정하기 위해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전력 직접구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규칙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기위원회는 산자부 심결정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수전설비용량 5만kVA 이상의 대규모 수용가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살 수 있는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구매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와 관련 정산·결제시스템 구축을 내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기위원회는 또 규칙 본문과 세부기준으로 구분돼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체계를 통합,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모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4년 4월 양방향입찰시장(TWBP) 개설에 대비, 시장 참여자



들의 불공정한 입찰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전기위 산하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감사위원회를 7명 이내에서 구성키로 하고, 이승훈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 위원을 위촉키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 대표를 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을 방침이며, 조사 결과 관련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차울적인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위원구성은 이달 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